

제 51 호

연중 제 33 주일

(평신도의 날)

1973. 11. 18

# 숲 정 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강 료】

## 평신도 사도직의 날

### 이 창 북

(한국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중앙 협의회 회장)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뜻깊은 평신도 사도직의 날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강론할 기회를 갖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주교님과 본당 신부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금년은 성년(聖年)이 공포되어, 온 성교회는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성년의 뜻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금년 6월 10일, 성신 강림 대축일에 선포된 성년은, 75년의 로마 베드로 대성전 순례로서 절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선포된 성년의 특성은, 로마에서부터 각 지방으로 번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부터 시작하여 로마로 향하여 집중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년이 목표하는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중심 사상에 의거하여 인간 전체의 내적쇄신(內的刷新)과 인간과 하느님,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화해(和解)를 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1962년 10월 11일, 고(故) 요안23세에 의해 소집된 제2 바티칸 공의회는 제4기를 마지막으로 1965년 12월 8일 대 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교회를 현대 생활에 적응시켜, 전 인류에게 보다 큰 봉사를 하려는 의도에서 이번 공의회는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하면 교회가 인류 구원이라는 본래의 사명을 더 잘 완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과거의 공의회는 어떠한 사건이나 학설이 발생했을때, 그 사건이나 학설에 대해 그것이 정론이나 이단이나를 가려내는데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첫째로 교회 자체내의 자각에서 부터 시작 했습니다.

둘째는 자각한 교회는 스스로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교회 쇠신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교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동시에 모든 갈라진 형제들과의 일치를 꾀하는 에큐메니칼(ecumenical)운동 즉, 일치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모든 타 종교와의 대화를 거기에 삽입하는 것을 잊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스스로 높은담을 쌓고 바깥 세계와 무관한 독자적인 존재함속에서 즉, 사회와 동떨어진 폐쇄된 울타리안에서 지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문자 그대로 구태의연한 "구교"라는 말을 들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공의회는 크게 반성을 했습니다. 즉 교회는 <2면에 계속>

### \*이주일의 미사\*

□**입당송** 나는 재앙을 내리려 하지 않고 평화를 주려 하노라. 나를 부르라. 너희 기도를 들어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도쳐에서 불러들이리라.

□**제1독서** (다니엘 12:1-3, 경향잡지 11월호 P.21)  
그때에 네 백성이 구원되리라.

□**찬송** ① 주여 나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는 이 몸이오이다.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어 당신을 모시고 흐뭇할 기쁨을 당신 오른편에서 영원히 누릴 즐거움을 보여 주시리이다. ②

□**제2독서** (히브리 10:11-14:18, 성서 P.510)

한 번 제물이 되심으로써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13:24-32, 성서 P.110)

사방에서 뿔뿔히 사람들을 모으리라.

###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오늘은 평신도의 날입니다. 아직도 당신의 백성인 평신도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을 결손과 지혜의 성신으로 비추시어 이들이 해야할 일을 제대로 알아듣게 인도하소서.

②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2. 용덕의 성신이며, 평신도들이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진리를 펴고 정의의를 지키는 일에 주저하지 말게 인도하소서. ③

3. 일치의 성신이며, 평신도들이 형제애로 일치하고, 성직자나 수도자들과 존경으로 일치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세상에 퍼는데 더욱 공고히 뭉치게 인도하소서. ④

⑤ 주여,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어 어두움에 빛을 밝히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⑥ 아멘

□**영성체송** 야훼님 곁에 있는 것이 내게는 행복, 이 몸 돌 곳 야훼님이외다.

### \* 숲 정 이 산책 \*



사회와 더불어 사회안에서 누룩과 빛의 역할을 함으로써 소금이 되어 이 사회를 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반성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과거와 같이 전통교회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어느 누구를 단죄하거나 새로운 교리를 신앙 개조로 선언하는데 있지 않고, 오직 사랑과 대화로서 무신론자와 비신자들 까지 포함한 현대 사회를 구하는데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약동하는 생명체로서 현대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동시에 현대사회안에서 “만인의 빛” (Lumen Gentium)이 되어 그리스도안에 모든 인류를 불러 모아 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는 교회의 참모습을 세상에 드러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강조한 점은 성신(聖神), 망덕(望德), 평신도(平信徒)에 대해서입니다.

첫째, 우리 교회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삼위일체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 많이 논의되고, 또 실제로 깊은 신앙을 가지고 대해 왔지만, 성신에 대해서는 기도중에 간혹 나오기는 하였지만, 등한시해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공의회는 현 시대는 성신의 시대임을 재강조 하면서, 성신은 인류의 마음안에 작용하고 있음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인류에 대해 큰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즉 그것은 공동체를 뜻합니다. 따라서 금번 공의회는 공동체의 의식을 뚜렷히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자기만의 관계를 생각하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신심(信心)이라는 면에서는 그대로 수공할 수 있으나,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봉사 의 면에 있어서는 별로 작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참다운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만수위에 사랑하는 동시에, 이웃을 제 몸 같이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즉 이웃에 대한 사랑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들은 흔히 신, 망, 애의 삼덕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신덕과 애덕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많이 의식하고 있지만 망덕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일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대한 희망에 살며, 그 희망으로 인해 기쁨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답변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두십시오” (베드 전3:15) 즉 우리는 가슴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속의 은혜라는 보물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으면서, 미래에 대한 기쁨, 희망안에 살면 그로 인하여 부지중에 즐거운 표정을 나타내게 됨으로써, 우리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기쁨을 그들에게 자랑스럽게 전해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교회에는 사제와 수도자와 평신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교회는 사제와 수도자를 중심으로 하고 평신도를 가볍게 여겨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공의회에서는 이 평신도의 지위를 본래의 지위로 올려 놓았습니다. 즉, 공의회에서는 이 점을 크게 강조하고 교회헌장 제4장에서는 “평신도 사도직”에 대해서 취급하고, 다시 “평신도 사도직 교령”까지 발표하여 평신도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했습니다, 평신도에 대해서 교회 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세(聖洗)로서 그리스도와 한몸이 되고, 하느님 백성중에 들고 그들 나뉘데로 그리스도의 사제적과 예언적과 왕직에 참여하여, 교회와 세계안에서 그리스도의 백성 전체의 사명을 각기 분수대로 수행하는 신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평신도들은 본래 현세적 일에 종사하며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함으로써 천국을 향하도록 불린 것이다. 그들은 세속에 살고있다. 그속에서 그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정신으로 스스로의 임무를 수행하며 마치 누룩과도 같이 내부로부터 세계 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특히 믿음(信)과 바램(望)과 사랑(愛)에 빛나는 실생활의 증거로서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교회헌장 4장 31항)

평신도는 교회에서는 신자라고 불리우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국가와 사회인의 한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영적질서와 현세적 질서안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이 그 특징이기도 합니다. 두 질서는 비록 별개의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한 계획안에서도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같은 한사람이 교회의 신자도 되고 사회의 시민도 되지만, 하느님은 두 질서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훌륭한 신자는 또한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현세의 질서를 비뚤어진 방향으로 이끄는 경향이 많습니다. 즉, 하느님 주신 현세의 사물을 죄악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더우기 자연과학 기술의 발전을 과신한 나머지 현세의 사물을 절대화하여 물질에 대한 우상숭배에 떨어져 가고 있으며 사람이 물질의 주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신 사도직의 임무는 이 비뚤어진 현세 질서를 바로 잡고 그를 그리스도안에 성화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평신도는 먼저 사랑으로써 일치하여 이웃에게 우리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임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며, 본당에서는 신부님들과 일치하여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헌장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으로서도 명백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평신도들은 하느님의 구세(救世) 계획이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할 빛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자의 능력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평신도들도 교회의 구원사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일이 넓게 열려 있어야 하겠다” (교회헌장 4장 33항)

친애하는 교형 자매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교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모든 사람이 물질 만능의 천박한 생활에서 벗어나 하느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째,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는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번 평신도 사도직 날을 계기로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도록할 것을 제의 합니다.

또 한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보다더 형제적인 사랑으로서 일치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이 곧 주님에 대한 사랑의 시초임을 명심하고 신자들끼리 보다 더 따스하게 형제적 사랑을 나누기로 합시다. 이 두가지를 금번 평신도 사도직날에 즈음하여 우리 서로 다짐하고 주님앞에 맹서로 드리는 우리 마음의 꽃다발로 삼기로 합시다.

□ 신 간 안 내 □

M. B. C. 연속방송. 내일을 위한 오늘



# 사색하는 생활

(이 거 영 지음)

「현대를 가리켜 <사랑의 사막지대>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인정이 메말랐습니다. 정서가 시들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물질 문명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억누릅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불안하다고 합니다. 초조하다고 합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허전해지고, 생활이 편리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공허해지기만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거기서 삶의 보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에는 사색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한 번 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이기에 우리는 한시라도 인생을 무의미하게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은이의 머리말에서)

교구 매스컴 위원회의 요청으로 지난 69년과 70년, 전주 문화방송의 넷트웍을 통해 「내일을 위한 오늘」이란 주제로 방송 원고를 집필했던 이거영(알로이시오-성심여고 교사)씨가 2년동안 방송했던 원고들을 총정리, 「사색하는 생활」이란 단행본을 발간했습니다.

「사랑의 사막지대」위에 사는 오늘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사색의 양서(良書)라고 믿기에 교형자매들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주문처: 전주 성심여중고(전화 ② 5037)와 각본당 사무처

●정가: 보급판 500원, 특별판 600원.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진량, 총무 안지은, 전화 ②3498)

- 20(화) 7시반-성경 교실
- 22(목) " -지성인 교리
- 23(금) 2시 -여성 교실

주제; 가톨릭 신자와 산아제한(박진량 신부, 심재영-성모병원 산부인과장)  
8시-레크레이션(주최: 가톨릭센터와 J.O.C)

### 외국 문화 교실

- English Conversation-월~금요일 7시
- 독어-Heideros-화, 목요일 6시
- Morgentau-월, 수요일 6시

### \* 이 주간의 성경 \*

- 19(월) 독서 (목시록 1: 1-25, 성서 P.558)
- 복음 (루 가 18: 35-43, 성서 P.181)
- 20(화) 독서 (목시록 3: 1-22, 성서 P.562)
- 복음 (루 가 19: 1-10, 성서 P.181)
- 21(수) 독서 (목시록 4: 1-11, 성서 P.564)
- 복음 (루 가 19: 11-28, 성서 P.182)

- 22(목) 독서 (목시록 5: 1-10, 성서 P.565)
- 복음 (루 가 19: 41-44, 성서 P.184)
- 23(금) 독서 (목시록 10: 8-11, 성서 P.572)
- 복음 (루 가 19: 45-48, 성서 P.184)
- 24(토) 독서 (목시록 11: 4-12, 성서 P.573)
- 복음 (루 가 20: 27-40, 성서 P.186)

### 일본어(日本語)교수

기초부터 회화·번역까지

<12월 1일 개강>

●전동1가 200의1 (전화② 3222)

장 복만(요셉)

### ※ 최신형 드레스 및 신부화장 ※

## 결혼 미용실

교우 여러분께 반액 봉사

● 중앙성당 앞

전화 ② 6794

이 현 주(메레사) 올림

### 제주도 관광 안내

항공편 왕복

- ◎19일 출발—22일 도착
- ◎27일 출발—30일 도착
- 회비 2박3일...13,500
- 3박4일...14,500(현재 접수중)

※ 신자들의 여행에 대해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여행및 산악 등반 안내

대한 관광 여행사

전화② 6546 이종길(요안)



책은

바른 신앙을 기르는

양식이요.

매개체다.

\* 성 바오로 서원 \*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1. 제4지구 (전주 지구) 성년 행사 안내
전주지구 제1차 성년행사 계획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어요! 모든 교우들은 이에 적극 협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순회 행사」 (가을 판공 성사를 겸함)

Table with 5 columns: Date, Venue, Preaching Pastor, Guest Pastor, and Service Details. Rows include dates from 19th to 30th with various church locations like '복자', '서학동', '노송동', '중앙', '전동', '덕진'.

①교백성사 (오후 7시-8시반) 제4지구 및 특수 사무 (성심, 센터, 해성)담당 신부 전원. ②미사 (오후8시반)
2. 활인규(마태오)신부 미국에서 일마치고 어제 교구에 돌아 오셨습니다.

(중앙) (전화 ②2651 ②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이복석

-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구역장·P간부·고문 연석회의
20(화)...구역장(진북 2동, 중노, 서노1구)
P(우리 즐거움의 연유, 능하신 정녀, 찬송하올 정녀, 풍소송진)
고문(김종순, 이상용, 이용호)
22(목)...구역장(태평 1가 2구, 경원, 서노 2구, 금암진북 1동, 인후동)
P(증거자의 모후, 평화의 모후, 사랑의모후, 사랑하오신 모친, 인자하신 모친, 성실하신 정녀)
고문(김영진, 박태복, 이강영, 이상범, 이종출)
24(토)...구역장(교사, 태평 2가, 태평 1가1구, 서신)
P.(상아보탑, 하늘의 문, 매귀의 모후, 셋별)
고문(김병구, 김성원, 양학도, 천진)

- 시간(매일 오후 7시반), ●장소(사제관)
3. 교백성사(본당은 26일(월)오후 7시 부터)
4. 신용조합(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월례회)
조합원 통장 제출요망(연말 결산 위한 통장대조)
□교무금 신입액 2,549,550원(81%)
지난주일 봉헌금 34,306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조해형

- 1. 부녀부 월례회(오늘 10시 미사후)
2. 사도회 월례회(다음 주일)
3. 애령회 간부회(오늘 10시 미사후)
임원 회장 박성규
부회장 전길남, 안말순
총무(양광식), 부총무(김수진)
재무(최복매), 부재무(육인녀)
섭의(김인숙, 박귀남, 백복희, 백선희, 정금순)
고문(사도회장, 각구역장, 김정생, 오모니카, 이정은, 이홍재, 손모니카)
1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일 신축성미 5말(누계 93말)
지난주일 봉헌금 12,295원, 감사합니다.

\* 설서 전시 안내 \*

때;매월 세제 주일

곳;중앙 성당

-성 바오로 서원(전화②7398)-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김종환

- 1. 신용조합 월례회(오늘 공식 미사후)
재교육...12월 2일(일)~4일(화)미사 때
2. 금주(19~23일)는 매일 오전 6시반 미사
3. 30일(금)에 본당 추계 판공 성사
교무금 납부에 정성을 다합니다.
4. 어린이 영세(매월 끝토요일 저녁 미사전)
□지난주일 봉헌금 4,425원, 감사합니다.
※주일금 배가 운동에 모두 참여, 협조합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 1. 본당 신부님 영명 축일에 협조해주시어 감사합니다.
2. 19일 성년행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피미시움(오늘 오후 1시반)
□지난주일 성미 2말 6되(누계 215말 6되)
지난주일 봉헌금 13,615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 화 ②227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최상의

- 1. 성사표 배부와 교무금 신입
19(월)...1~6반, 20(화)...7~11반, 21(수)...12~17반
2. 성년 행사에 적극 참여합니다.(21일)
교백성사는 21일에 봅시다.
3. 신용 조합 월례회(다음주일)
4. 중·고등학교 교리(다음주일 오전 9시~10시)
5. 중 1·2학년생 집합 (다음주일 공식미사후, 강당)
★결혼을 축하 합니다★
18 (일) 김창덕군과 이화순양(10시)
24 (토) 송대준군과 김수덕양(11시반)
□지난주일 봉헌금 11,25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 화 ②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재진

- 1. 피미시움 월례회(오늘 오후 1시반)
2. 성가연습(매주 금요일 오후2시)
시간 변경에 유의하시고,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3. 교무금 신입 현황
1,615,600원(227세대분)
◎11월 중으로 신입합니다.
□부녀부 성미 9되(누계.현금 53,165원)
애령회 특별 헌금 5,982원
지난주일 봉헌금 31,726원, 감사합니다.

● 11월은 위령의 달 ●